

2006년 국내외 자동차 산업 전망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06년 자동차산업전망을 05년 12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계 자동차 수요는 3.2% 상승할 것이며, 국내 자동차 산업은 건조한 수출 성장세 지속과 내수 회복으로 생산이 8.1% 증가하여 자동차 생산 400만대 시대에 진입할 전망이다.

1. 세계 자동차수요 전망

06년 세계 자동차수요는 미국, 일본, 서유럽 등 주요시장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여 전년대비 3.2% 증가한 6,815만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 06년 세계 자동차수요 전망 〉 (단위 : 천대, %)

구분	04	05(추정)	06(전망)		
			증가율	06(전망)	증가율
총계	63,970	66,020	3.2	68,145	3.2
북미	20,036	20,374	1.7	20,554	0.9
미국	17,353	17,604	1.4	17,742	0.8
서유럽	16,824	16,971	0.6	16,849	-0.4
아·태평양	16,671	17,634	5.8	19,069	8.1
일본	5,791	5,841	0.9	5,885	0.8
중국	5,143	5,604	9.0	6,446	15.0
동유럽	3,670	3,770	2.7	3,988	5.8
중남미	2,320	2,624	13.1	2,759	5.1
기타	4,449	4,701	5.7	4,926	4.8

자료 : J.D.Power-LMC, 「Global Car & Truck Forecast, 05.3Q」

북미시장은 06년에도 멕시코시장의 호조세가 예상되나 미국, 캐나다시장의 부진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한 2,055만대로 정체 예상되고, 서유럽 최대시장인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년에 부진했던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시장은 05년 5.8% 성장에 이어 06년에도 중국, 태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8.1% 증가한 1,907만대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동유럽시장은 최대시장인 러시아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전년대비 5.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폴란드(23.9% 증가), 우크라이나(9.7% 증가) 등 을 중심으로 06년 동유럽 전체는 전년대비 5.8% 증가로 호조가 예상되고, 중남미시장은 최대시장인 브라질이 신장세를 이어가 전년대비 6.8% 증가가 예상되고 기타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베네주엘라도 증가세를 보여 06년 중남미 전체로는 5.1% 증가할 전망이다.

2. 국내 자동차산업 전망

06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수출이 건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지난 3년간 부진했던 내수가 회복세로 전환되어 국내 자동차산업은 최초로 자동차생산 4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 06년 자동차 수급 전망 〉 (단위 : 천대, %)

구분	04	05(추정)		06(전망)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생산	3,469	9.2	3,700	6.6	4,000	8.1
국내판매	1,094	-17.0	1,120	2.4	1,250	11.6
수출	2,380	31.1	2,580	8.4	2,750	6.6
(억불)	(325)	39.2	(379)	16.7	(435)	14.7
수입	35	15.7	42	21.0	50	19.0
(억불)	(42)	15.4	(46)	10.9	(53)	14.3

주 : 수출입은 통관기준, 수출입금액은 부품 포함(MTI 741, 742)

(1) 내수

06년 내수판매는 고유가로 인한 유지비 부담, 건설경기 부진, 높은 청년실업률 등 부정적 요인이 크게 개선되지

않겠으나 내수위축의 주요 원인이었던 경기침체가 회복세를 보이고, 디젤승용차를 포함한 다양한 신차출시, 잠재된 대체수요의 현재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11.6% 증가한 125만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승용차 부분은 3개의 디젤승용차 및 6개 차종의 신차출시와 그동안 노후차량 누적으로 잠재된 대체수요가 구대로 이어져 전년대비 12.3% 증가한 100만대로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세그먼트별로 경차가 3.8%, 소형 12.3%, 중형 15.0%, 대형 16.0% 그리고 SUV와 CDV가 각각 10.1%, 8.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상용차는 건설경기가 주택시장 위축 등의 악재로 인해 본격적인 회복은 어려워 전년대비 8.9% 증가한 25만대로 소폭 회복할 전망이다, 트럭은 토목건설 등 공공부문의 건설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신규주택부문이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년대비 7.3% 증가한 16만 5천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버스의 경우 전년 대비 서비스업경기가 다소 회복을 보이면서 전년 대비 12.2% 증가한 8만 5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품목별 자동차 내수 전망 〉 (단위 : 천대, %)

구분	04		05(추정)		06(전망)		증가율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05/04	06/05
총계	1,094	100	1,120	100	1,250	100	2.4	11.6
승용차	858	78.5	890	79.5	1,000	80.0	3.8	12.3
상용차	236	21.5	230	20.5	250	20.2	-2.6	8.9
버스	91	8.3	76	6.8	85	6.8	-16.8	12.2
트럭	145	13.2	154	13.7	165	13.2	6.3	7.3
(1톤 트럭)	97	8.9	106	9.4	115	9.2	9.0	8.9

(2) 수출 및 수입

06년 자동차수출은 원화절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고유가로 인한 주요 자동차시장 정체, 해외생산의 본격화 등에도 불구하고 국산차의 품질 및 브랜드이미지 상승, 수출전략차종 투입, 미국, 서유럽 등 주요시장점유율 상

승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한 275만대 (435억불)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되지만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자동차 수출 전망 〉 (단위 : 천대, %)

구분	04		05(추정)		06(전망)		증가율	
	수량	비중	수량	비중	수량	비중	05/04	06/05
총계	2,380	100	2,580	100	2,750	100	8.4	6.6
승용차	2,277	95.7	2,451	95.0	2,615	95.1	7.7	6.7
상용차	103	4.3	129	5.0	135	4.9	25.3	4.5
버스	40	1.7	46	1.8	50	1.8	15.5	6.6
트럭	63	2.6	83	3.2	85	3.1	31.5	3.3
수출금액	325	100	379	100	435	100	16.7	14.8
원생차 (MT74)	266	81.8	293	77.3	310	71.3	10.3	5.9
부품 (MT74)	59	18.2	86	22.7	125	28.7	45.6	45.0

05년 처음으로 350억불을 돌파한 자동차수출액은 RV와 중대형차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이 늘면서 06년에는 전년비 14.8% 증가한 435억불(우리나라 총수출의 14.3%)에 이를 전망이며, 지역별로는 동유럽, 아·태평양, 중남미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북미수출 비중은 저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06년 수입차 판매는 수입차업체들의 중저가격대 차량을 포함한 다양한 모델 투입, 전시장 및 A/S센터 확충, 광고선전 강화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 따라 전년대비 19.0% 증가한 5만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수입차 점유율은 05년 3.6%에서 06년에는 3.8%로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자동차 공업협회(KAMA) 자료 발췌)